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률들



최저임금 79만 2천 투그릭으로 인상

1995년 이후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1995년에는 최저임금이 9,600 투그릭이었으며,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11년에는 14만 투그릭이 되었습니다. 이후 8번의 인상을 거치며 현재 최저임금은 66만 투그릭으로, 5.6배 증가한 상태입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4,715 투그릭, 월 79만 2천 투그릭으로 조정된다는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 소득세법 개정

소득세 납세자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창출 활동과 관련 없는 투자 비용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재정적 지원 및 기부금 감면 금액은 해당 과세 연도의 과세 소득의 최대 1%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국공립 교육 및 의료 기관에도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8월 30일 법률에 추가되었으며, 2035년 1월 1일까지 시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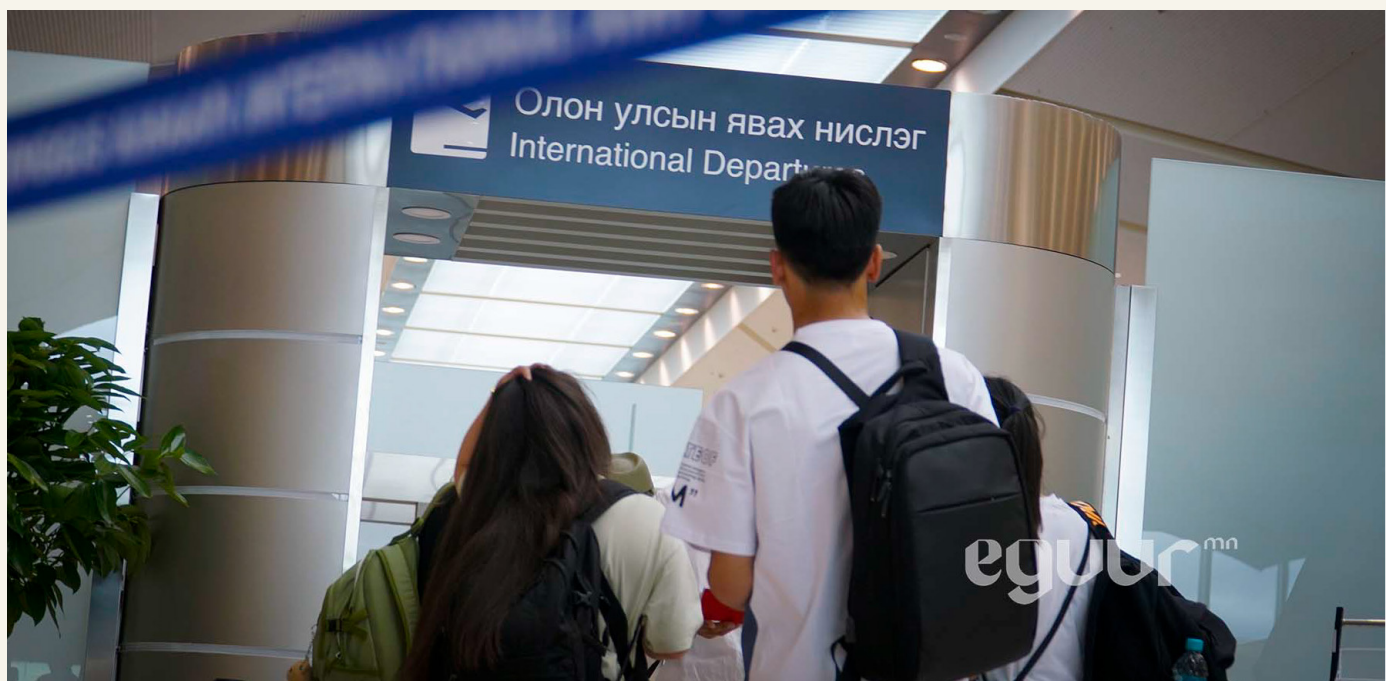
소규모 사업체 소득세법 개정

에너지 규제 위원회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전기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난방 요금은 2025년 5월 16일부터 현실 비용에 맞게 조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는 2025년 9월 15일부터 난방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공공기관은 10월 1일부터 새로운 난방 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국 국민,

몽골 무비자 체류 기간 1년 연장



몽골 정부는 한국 국민의 관광 목적 무비자 체류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대한민국 Travel Times 사이트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몽골 정부는 2022년부터 한국 국민이 관광 목적으로 몽골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임시 허용해왔습니다. 원래는 2024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5년에 몽골 관광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번 연장이 한-몽 양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국민 간의 이해와 우호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국민은 90일 이하의 관광 목적으로 몽골에 체류할 경우 현재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 외의 목적, 예를 들어 취업, 유학, 장기 체류, 기타 개인 방문을 위해서는 적절한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